"韓 증시, 계엄사태 이후 글로벌 최하위… 개미 투매 부담"

야 3당 자본시장 현안대응·현장점검
外人 다행히 공격적 이탈 모습 없어
작년 이어 내년 성장률 역대 낮아
기업투자 급감 가능성 '최대 리스크'

강준현(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3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보이면서 수익률도 글로벌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선제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날 3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 11명 등이 자본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시황을 살피기 위해 거래소에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주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보다 2.78% 떨어진 2360.58에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은 5.19% 폭락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개미(개인투자자) '패닉셀(공포로 인한 투매)' 현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황 브리핑을 맡은 김 센터장은 "계엄령 이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부담"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공격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반기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한국 포지션이 선제적으로 축소된 영향"이라고 짚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외국인은 4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약 903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이전인 11월 말 대비 매도 강도가 약화됐다는 평가다.

더불어 앞으로 경기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2.5%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2.2%까지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9%까지 낮아졌다"며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한 이후 성장률 1%대를 찍은 것은 작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은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고, 내년 성장률이 1%때로 찍힌다는 것은 굉장히 기록적"이라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도 보다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내수의 구조적 둔화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출 성과가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2025년에는 기업 투자 급감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 불투명, 한국의 정치불안 등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한국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했던 사례는 IMF외환위기(1998~99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미중 무역분쟁(2018~19년) 등이 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예상했던 탄핵이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투영되면서 코스닥에서도 개미 투매 현상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다"며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증시는 돌아올 수 있다"고 정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지난주 테슬라 5.8억달러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2기 트럼프 정책 직접적 수혜 기대감
자율주행 로보택시 신사업도 영향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트럼프 수혜 기대 등으로 11월 미국 대선 이후 55% 넘게 급등한 테슬라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12월 3~12월 9일) 테슬라 주식을 5억877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4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389.79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15% 상승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 선거 캠프에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기부하는 등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보택시 신사업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어메리카(BOA)의 수석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공장 방문 이후 테슬라가 핵심 전기차사업과 로보택시 출시,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를 3억111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미국 대선 후 반도체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은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고공행진하는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병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결국 근원 서비스 CPI 상승세 완화가 중요한데, CPI 상승 기여도의 35%를 차지하는 자가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첫 획득

교보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첫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보증권은 인증평가에서 최고경영진의 소비자중심경영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기업문화 등에 평가를 받았다. /교보증권

지난달 장외채권금리 일제히 하락

금투협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
한은·연준 기준금리 인하 영향

지난달 장외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07%로 전월 말 대비 20.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년물(연 2.650%)과 10년물(연 2.751%) 금리도 각각 23.7bp, 24.1bp 내렸다.

국내 국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으나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각각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특히 장기물의 금리 하락 폭이 확대됐다. 금투협은 "월말 개최된 금통위에서 신(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기준 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월말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하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4조8000억원 감소한 7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잔액은 국채와 금융채 등 순 발행액이 18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283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外人, 4개월 연속 증권 '팔고' 채권 '사고'

금감원 '지난달 外人 증권투자 동향'
코스피 4.2조 매도, 코스닥 830억 매수

외국인이 4개월 연속으로 증권은 순매도, 채권은 순투자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통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난달 4조 2370억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830억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외국인은 4개월째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보유잔액은 전월 대비 35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지난 11월말 기준 693조6000억원어치로, 이는 시가총액의 27.4%에 해당한다.

미국이 279조3000억원으로 선두였다. 전체 외국인의 40.3%를 차지했다. 유럽(214조2000억원, 30.9%), 아시아(101조원, 14.6%), 중동(11조2000억원, 1.6%)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 채권 3조259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772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1조487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액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270조원이다. 보유량은 전체 상장 잔액의 10.4%를 차지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 십억원, %, 결제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10월	11월	보유잔액
주식	10,501	9,417	1,084	6,966	△ 4,388	△ 4,154	693,635
채권	13,562	13.329	233	19,705	6,627	1,487	270,016
합계	24.063	22,746	1,317	26,671	1,139	△ 2,667	963,651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금융감독원